

고연옥 희곡의 인정투쟁 양상 연구

- ‘내가 까마귀였을 때’를 중심으로 -

진 주(전북대)

< 목 차 >

- | | |
|----------------------------|---------------------------|
| 1. 들어가며 | 3. 인정투쟁의 양상: 상호인정과 공동체 복원 |
| 2. 인정투쟁의 촉발 요인: 조건적 환대와 무시 | 4. 나가며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작품을 통한 고연옥의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사회비판과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사회상을 발견하려는 시도이다. 신화와 비극의 세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작품들이 주로 연구되면서, 고연옥의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적 사회상과 그 언어들은 소홀히 연구되었다.

「내가 까마귀였을 때」는 그녀의 다른 작품과 달리 미래지향적 결말과 인정투쟁을 통한 긍정적 자기인식의 추구,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그리고 있다. 특히, 작품의 주된 갈등을 촉발시키는 주인공 아이가 자신을 부정하는 공동체를 수용하게 되는 과정과 공동체로부터 자신 역시 수용되는 상호적 인정 과정은 주인공뿐만 아니라 각 등장인물이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며 성숙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악셀 호네프의 ‘인정투쟁’의 주요 전제를 떠올리게 한다. 호네프에 따르면, 투쟁의 동기는 무시이며, 투쟁의 목표는 인정이다. 인정투쟁의 촉발 요인은 자기 존엄에 대한 부정이며, 무시로 인하여 부정당한 자기 존중을 되찾는 과정이다. 그는 이러한 인정투쟁 모델을 통해 사회의 역동성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더 나아가 사회의 병

리적 현상을 분석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아이의 인정투쟁은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그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자신을 타자화하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무시당한 자기 존중,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는 것이다. 그의 투쟁은 개인의 투쟁으로 그치지 않고, 그의 투쟁은 그의 형제 자매들이 각자의 욕망과 자아를 발견하도록 돕는다. 이 작품은 '중산층'과 '정상 가족'에 대한 풍자보다는, 각자가 지닌 진실에 대면하여 올바른 개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가족들은 기존의 내면화된 가부장적 위계질서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원 개개인은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로 서로의 관계를 인정함으로써 자신들도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구성원의 개성과 선택을 존중하면서, 공동체의 영역을 물리적으로, 또 관념적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자 한다. 작가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 균열과 붕괴를 겪은 현실 공간과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동등한 존재로 받아들이며, 있는 그대로의 공간과 존재로서 서로를 존중할 때 진정한 재생과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주제어 : 내가 까마귀였을 때, 고연옥, 인정투쟁, 호네트, 무시

1. 들어가며

극작가 고연옥(1971~)은 1994년 부산 MBC 아동문학대상 소년소설 부문으로 등단하여 동화작가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6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희곡부문 「꿈이라면 좋았겠지」로 등단한 이후 쉬지 않고 왕성한 창작활동과 유수의 수상 경력¹⁾을 보유한 가장 주목받는 동시대 한국 극작가 중 하나이다.

1) 「인류 최초의 키스」로 올해의 연극베스트3, 「웃어라 무덤아」로 올해의 예술상 연

고연옥의 작품 세계는 실제 발생한 범죄사건 등을 소재로 하여 권력과 폭력, 자유에 대한 사유가 담긴 사회성이 짙은 작품들이 한 축을 담당하고, 신화적 소재와 세계관이 바탕이 되는 작품들이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축들을 통해 작가는 인간의 고통과 구원²⁾에 대해 깊이 천착하고 있다. 작가와 작품에 대한 연구의 방향도 대체적으로 이러한 노선을 따르고 있다.³⁾

김성희는 특히 고연옥을 90년대 이후 뚜렷한 세대교체를 이룬 새로운 극작가군으로 분류하고, 인간의 근원 즉, 죽음과 삶의 의미를 존재론적 사유를 기반으로 하여 비극적 소재를 역설과 아이러니라는 비전을 통해 극화한다고 소개하며, “고통과 구원의 이중구조”, “모성과 재생의 상상력”으로 작가의 세계를 요약했다. 조만수 역시 인물들의 ‘되돌아가려는 행위’를 ‘고향’과 ‘자궁’으로 되돌아가려는 것, 곧 죽음을 통해 더 큰 생명을 얻고자 하는 회귀적 세계관으로, 모성적 세계의 지향으로 해석했다.⁴⁾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에 따르면, 고연옥의 세계는 ‘무덤’이자 ‘도달해야 하는 목표 지점’으로서의 희망의 무지개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이며, 문제를 축

극부분 우수상, 「발자국 안에서」로 서울연극제 대상·희곡상을 받았다. 「주인이 오셨다」로 올해의 연극베스트7과 대한민국 연극대상 희곡상, 「칼집 속에 아빠」로 대산문학상을 수상했다. 2015년에는 「처의 감각」으로 벽산희곡상을, 2017년에는 「손님들」로 제54회 동아연극상 희곡상, 제11회 차범석희곡상을 수상하였다.

- 2) 김성희, 「고통과 구원: 모성과 재생의 상상력-극작가 고연옥론」, 『연극평론』 복간 12호(통권32호), 2004, 봄호, 38쪽 참조.
- 3) 사회극 계열의 작품 연구는 장윤정, 「고연옥의 사회극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이경미, 「2010년 이후 한국희곡에 나타난 위험사회의 징후 : 기억되지 못한 역사, 트라우마 그리고 무기력」, 『드라마연구』41, 2013, 67-107쪽; 홍창수, 「감옥 소재 희곡의 공간 의미 연구」, 『민족문학사연구』44, 2010, 480-512쪽 등이 있고, 신화적 계열의 작품 연구는 김성희, 「고연옥 희곡의 신화적 상상력과 해체적 신화쓰기」, 『드라마연구』51, 2017, 149-188쪽; 김성희, 「동시대 희곡에 나타난 신화적 상상력과 신화 다시쓰기 방식 - <에비대왕>과 <처의 감각>을 중심으로」, 『한국연극학』67, 2018, 5-46쪽 등이 있다.
- 4) 조만수, 「평론:길위에 짓는 존재의집, 이정표」, 『고연옥 희곡집2』, 연극과 인간, 456~459쪽 참조.

발시킨 시스템보다는 개인의 자기인식에 대한 시도를 그리는 것⁵⁾에 그치게 된다. 과국으로 치닫는 결말 속에서, 관념적으로는 모성적 신화의 세계로 회귀하기에 작품을 통한 고연옥의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사회비판과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사회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작가의 작품세계를 한정하게 된다.

「내가 까마귀였을 때」는 사회극 3부작으로 불리우는 「인류최초의 키스」, 「일주일」, 「백중사 이야기」나, 신화적 작품으로 분류되는 「지하생활자들」, 「내 이름은 강」, 「칼집 속의 아빠」와는 다소 다른 계열의 작품이다. 존재론적 성찰을 통한 자기인식의 변환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작품 세계의 연장선에 있지만, 이 작품이 고연옥의 작품세계에서 독특한 지점을 보여주는 이유는 다른 작품에 비해 보다 실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내가 까마귀였을 때」에서 주된 갈등을 촉발시키는 주인공 아이가 자신을 부정하는 공동체를 수용하고, 공동체 역시 아이를 수용하는 상호적 인정 과정은 주인공뿐만 아니라 각 등장인물이 각 자아를 만나고 형성하며 성숙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악셀 호네트(Axel Honneth, 1949~)의 ‘인정투쟁’의 주요 전제를 떠올리게 한다. 그는 ‘인간이 자기보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한 사회 속에서 투쟁한다’⁶⁾고 보았다. 이 투쟁의 핵심은 ‘사회적 투쟁이 상호인정이라는 상호주관적 상태를 목표’⁷⁾로 한다는 것에 있다. 인정투쟁의 촉발 요인은 자기 존엄에 대한 부정이며, 무시로 인하여 부정당한 자기 존중을 되찾는 과정이다. 이러한 인정투쟁 모델을 통해 사회의 역동성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더 나아가 사회의 병리적 현

5) 사회적 조건으로서의 억압과 그 안에서의 투쟁을 밑그림 삼으면서도 고연옥의 궁극적 관심은 존재론적 성찰로 향한다. 고연옥은 세상을 바꾸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삶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변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만수, 위의 책, 443~444쪽 참조

6) 문성훈, 「악셀 호네트와의 대담: 현대 비판의 세 가지 모델」, 『한국사회와 모더니티』, 이학사, 203~204쪽 참조.

7) 악셀 호네트, 문성훈·이현재 역, 『인정투쟁: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사월의 책, 2011, 15쪽.

상을 분석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호네트의 ‘인정투쟁’ 개념을 중심으로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 인물들이 벌이는 인정투쟁의 양상 및 그 결과가 사회문제를 어떻게 촉발시키며, 어떠한 대안 찾기로 나아가는지를 확인하여, 비극적이고 병리적인 현실인식과 투쟁에서 더 나아가 작가가 선취하고자하는 미래상의 근거를 찾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한 해석의 영역을 보다 확장하고자 한다.

2. 인정 투쟁의 촉발요인 : 조건적 환대와 무시

2.1. 가부장제의 내면화와 가족 공동체의 몰화

호네트가 말하는 ‘인정’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자 각 개인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의식⁷⁾을 가지게 하는 심리적 조건이다. 또한, 그는 개인을 자기만의 특수한 속성을 지닌 존재로 인정해야 하며, 세 가지 인정형식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각 개인이 한 공동체의 온전한 구성원이 된다고 설명했다.⁹⁾ 상호주관적인 세 가지 인정 유형인 사랑, 권리, 연대는 헤겔의 예나 시절 초기 저작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호네트는 각각 원초적 관계, 권리 관계, 가치 공동체로 인정 형태의 영

7) 미드에 따르면 자기의식은 ‘주격 나’가 ‘목적적 나’를 대상으로 삼을 때, ‘주격 나’가 ‘목적적 나’에 반응할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기 의식이란 내가 나와 맺는 자기 관계다. 그런데 ‘목적적 나’는 타자를 인정하는 가운데 타자의 기대와 반응을 받아들임으로써 형성된다. 따라서 ‘주격 나’는 타자를 인정할 때 ‘목적적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리고 타자가 나를 긍정적으로 이해할 때 나는 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고 통합된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현재, 『악셀 호네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9, 23쪽.

8) 악셀 호네트, 문성훈·이현재 역, 『인정투쟁;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사월의 책, 2011, 15~16쪽 참조.

역을 구분하였다.

헤겔에게 ‘사랑’은 상호주관적으로 공유되어 ‘타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인식’이며, 이 관계 속에서 성장한 최초의 상호인정관계가 이후 모든 정체성 발전의 필연적 전제라고 보았다. 이 인격 관계를 통해 개인의 특수한 성향을 인정하고, 개인에게 포기할 수 없는 자기 신뢰를 하게 하기 때문이다.¹⁰⁾

여기에서 나아가 호네프트는 사랑, 즉 정서적 상호작용 속에서 아이는 자신의 통합적, 독립적 자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부부, 가족같은 사적 영역 내에서의 정서적 상호작용은 타자와 자신이 연관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가운데 독립성과 통합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타자에 의존하고 있음을 이해함으로써 비로소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해에 도달하는 방식¹¹⁾이다.

이렇듯 가족은 모든 정체성 형성의 전제가 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공간이자 관계이지만, 이 작품 안에 등장하는 이들은 가족으로서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는 한국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가부장제의 위계적 질서와 자본주의의 영합, 그를 통해 공고화된 시스템에 가족구성원이 인격적으로 종속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개인의 개성이나, 목표보다는 공동체의 집단적 목표가 우선되기 때문에 최종적 목표를 위해 개별적 욕구들은 생략되거나 삭제된다. 주체와 타자를 구분하는 개념이 뚜렷해지지만, 주체는 주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이라는 대표자 혹은 집단의 목표와 요구를 내면화한 개별 구성원으로 존재한다.

극의 등장인물은 아버지, 어머니, 누나, 형, 아이, 남자, 여자까지 모두 7명이다. 이들은 아이를 중심으로 각자의 가족을 구성한다. 아이를 잃어버렸으나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4인, 아이가 실종된 후 길에서 만나 함께 살아온 또 다른 가족인 남자와 여자다. 등장인물들은 모두 개인의 이름을 갖고 있지

9) 위의 책, 91~92쪽 참조

11) 악셀 호네프트, 앞의 책, 28~32쪽 참조.

않으며, 아이의 시선에서 보이는 관계 혹은 명칭이 이들의 ‘이름’이자 역할이 된다. 총 3막 1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극은 실종된 아이를 13년 만에 부모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 데리러 가자, 누나와 형이 이들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서부터 시작된다. 가족들 간의 불화와 소통의 노력 끝에 아이가 다시 부모의 집으로부터 떠나 지나간 삶과는 다른 삶을 시작하기 위해 길로 다시 떠나는 데에서 끝나게 된다.

1막은 아이의 귀환과 아이의 ‘까마귀’라는 또 다른 정체성, 그의 과거를 모른 척하는 가족구성원들의 모습을 중심으로 그려진다. 자신의 실종 상황에 대해 알고 싶어하지만 아버지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아이는 가족의 기대를 따르려고도 해보지만, 그의 ‘냄새’는 감추어지지 않고, 가족들은 자신들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만족한다. 아이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려하지 않는 가족들을 모욕하고 비난해보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그의 분노와 고통에 대해 똑같이 분노하며 듣지 않으려하거나, 무마하고자 한다.

2막은 아이가 집안에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가족 간에 발생한 문제들을 보여준다. 아이의 냄새, 악취는 집안 곳곳에 퍼졌으며 아이는 집안에서 가장 강한 존재,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 형과 아이의 관계도 전복되었다. 형은 아이로부터 ‘모욕’과 ‘행복’을 함께 느끼고 내쫓아버리는데 결국 아이를 찾지 못한 채로 집에 돌아온다. 가족들은 아이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한편, 아이는 길에서 노숙인으로 보이는 남자·여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다. 이들은 아이가 과거, 길에서 지낼 때 함께 지내온 또 다른 가족이다. 아이는 이들에게 이제 ‘우리 집’이라고 말하며 집으로 들어간다. 이제 손님과 집주인의 관계가 전복된다. 남자와 여자를 밀어내려는 가족에게 남자는 이 가족들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들을 내쫓으려 한다며, 그만 아이를 돌려달라는 엄마의 부탁에도 아이를 강아지 데리고 놀 듯 사는 게 가족이라며 비난한다.

3막은 이후, 남자와 여자가 사라진 상태에서 시작된다. 사라진 남자와 여자, 아이 때문에 가족들은 아이에 대한 불안과 불만, 자책같은 복잡한 감정

에 놓여 있다. 그러나 밖에서 가족을 보는 아이의 눈에 이들은 행복해보일 뿐이다. 마침 아이를 찾으러 온 아빠와 마주친 아이는 가족들과 온전히 대면하고자 한다.

아빠와 집에 돌아온 아이는 가족을 비난하고, 가족들은 서로 언쟁을 높이면서, 아이가 가족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드러난다. 실종됐던 시기에 아무도 아이를 찾지 않았다는 말이 아이를 옴아매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아버지는 자신이 가족 동반자살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갔던 놀이동산에서 아이를 두고 온 사실을 밝힌다. 누나 역시 기억을 떠올리며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하고, 형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충격에 빠져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한다.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사과한다. 아이의 눈에 공고해보이고 행복해보였던 4인 가족에 균열이 가자 아이는 자신이 모든 것을 망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엄마는 동반자살을 시도하던 중에 울고 있는 ‘아이’의 환상을 만나게 되고 그때 정신을 차린 이들이 당장 응급실로 달려가 모두 살아남은 것임을 밝힌다. 가족들은 용서를 구하고, 아이를 기다려왔다고 말한다. 이들은 더 이상 아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는 아무도 미워할 수 없게 된다. 형은 떠나겠다는 아이에게 함께 가자고 권한다. 가족들은 처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알게 된다.

시간이 지나 형이 먼저 집을 떠난다.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 떠나는 것이다. 이제 부부만 남은 집에는 겁 많고 약한 아버지의 면모가 드러난다. 그때, 어딘가로 떠났던 아이가 잠시 돌아온다. 아이는 아직 돌아올 수 없다며 ‘까마귀’였을 때 모아둔 것들을 버리고, 오랜 슬픔도 버리고 온다는 약속을 하고, 다시 길을 떠난다.

이 작품의 가족은 13년간 실종되었던 막내 ‘아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가부장제에 순응하는 가족의 모형을 보여준다. 대표자이자 부양자인 아버지와 그를 보완하는 어머니,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라는 정해진 역할이 있으며, 그 질서와 구도 속에서 ‘안정’을 획득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가족 모형은 개인의 성격적 측면을 떠나 신자유주의 시장과 영합하는 가부장제의 특성들을 극대화하여 보여준다.

한국 사회는 ‘가부장제를 보완하는 국가’이며,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가족의 경제적 기능은 오히려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가족은 노동력 재생산의 거점’이며 ‘경기 확장에 대비하여 예비인력을 저장하는 장소’가 된다. 가부장제는 구성원을 경제적 이해관계로 엮어버린다. 부양자로서 가족 내의 모든 결정권을 지닌 ‘아빠’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성원권을 제한하며, 이들을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뿐만 아니라 구성원을 타자화하고 물질화한다.¹²⁾ 가부장제는 공동체의 구성원을 대상화하고, 비인격적인 존재로 다룬다. 이때, 가부장은 단순히 구성원의 대표격이 아니라, 구성원들을 소유물과 동등하게 여길 수 있고, 그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권력과 위치가 부여된 자리이다. 이 대표자 앞에서 각 개인은 주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에, 온전한 인격을 지닌 개체로 보기 어렵다. 호네프는 “물화”를 상호인정을 실현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고, “물화”란 결국 인정의 망각임을 주장¹³⁾한다.

각 개인의 상호인정을 망각한 극단적 결과로서 아빠는 IMF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 아내,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들과 함께 동반자살을 감행한다. 이 과정에서 가부장제와 결합하며 더욱 공고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파탄’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작은 사회의 근간을 해체하고 분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적 기반 없이는 결단코 유지될 수 없는 중산층 가정의 삶과 그 영속성에 대한 믿음이 산산히 부서지는데, 이 모습은 ‘양지바른’ 자본사회에서의 추락은 경제적 기반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을 역설한다. 빈민 계급으로 떨어지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결정한 ‘아빠’는 온가족을 데리고 결심한다. 이 극의 비극은 이러한 ‘아빠’의 판단과 실천에 의해 시작된다. 물론 이것을 결정한 ‘아빠’ 개인의 도덕성 또한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지만, 이 가족의 불행이 촉발된 지점은 자본주의 사회구조의 문제에서 온 것이지 그 개인의 어떤 치명적 결함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13년 전, 아빠는 남품하는 회사들이 줄지어 도산을 하며 대금을 떼이고

12)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185~189쪽 참조.

13) 악셀 호네프, 강병호 역, 『물화』, 나남, 2006, 88쪽.

빛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자 온 가족들을 데리고 유원지로 ‘마지막 소풍’을 간다. 길이 없다고 생각한 아빠는 길 위에 아이를 남겨두고, 막다른 길-바다-에서 동반자살을 감행하려고 하지만, 엄마는 차 밖에 ‘아이’가 울며 서있는 환상을 보게 된다. 엄마는 ‘아이’가 저들을 살리러 왔다고 생각하고 남편을 부른다. 그 덕에 아빠는 창문을 열고, 곧장 응급실로 달려갔고, 그때부터 돌아보지 않고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악착같이 살게 된다.

13년 전 막내아들을 잃어버림으로써 그 위상이 일부 훼손된 아빠는, 이후 다른 가족 구성원을 건사하며 가정의 경제적 위기를 이겨내고, 실종된 아이를 오랫동안 찾아 헤맨다.

그러나 그날의 비밀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거나 몰랐던 가족구성원들은 보호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아빠를 비난하기 보다는 그의 죄책감과 부채감을 나누어지고 살아오며 일종의 결속력을 갖게 된다. 경제적 위기 속에서 경제 공동체인 가족의 생존에 몰두한 부양자를 비난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즉 또다른 구성원의 상실 혹은 공동체의 영원한 붕괴를 물고 울 수도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실수’를 용인하고 생존을 선택한 것이다.

특히 누나와 형은 가족 상실의 고통을 각자의 위치에서 재해석하고 내면 화하여, 그들의 삶의 목표에 반영한다. 또한, 실종된 아이만 돌아오면 ‘정상 가족’으로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데, 이 기대는 그들 가족의 삶의 축이 된다. 누나는 ‘좋은 누나’, ‘힘 있는 사람’이 되어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되찾고 싶어 최선을 다해 공부했고 명문대생이 되었으며, 형은 동생의 실종에 대한 직접적인 기억조차도 없지만, 역시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찾고 싶어 학교도 포기하고 집을 떠나 집 없는 이들을 위한 집을 길에 짓는 인생을 산다.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 않지만, ‘아이’는 여전히 유효한 존재로서 이 가족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이 구성원들은 죄책감과 부채감을 내면화하고, 가족들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지양하는 것으로 이러한 감각들을 희석시켰다.

누나 : 우린 다른 집들하고는 좀 달랐지.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는 일부러 만
들지 않았고, 모여서 식사하는 일도 별로 없었어. 네 생각을 안 할 수
없으니까. (106)

“물화”의 대상이 된 것은 귀환한 ‘아이’도 마찬가지다. 아이는 버려질 때도
욕구와 의지를 지닌 온전한 존재로 인정되지 않았다. 아이가 돌아와서도 부
모와 누나는 유기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며, 가족들은 아이가 돌아왔
을 때, 지난 시간 동안 길 위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조차 묻지 않는
다. 그들은 잃어버린 소유물을 되찾은 반응을 보이며 이들이 이제 ‘정상’의
범주 안에 들어왔음에 안도한다. 그러나, 아이는 보란 듯이 그 부분을 문제
삼으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한다.

아이: 날 기다렸다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왜 아무도 안 물어
봐? 진짜 날 만나고 싶었다면 당연히 처음부터 물어봤어야지. 하나같
이 날 죽은 사람 취급했어.(107)

아이가 사회적 규율과 도덕과 같은 기존 질서를 전복시키고, 금기를 넘으
려하는 ‘바깥’의 논리로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가
족들이 대립하면서 진정한 가족과 공동체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 함께 제기
된다. 이 구조는 가족에 대한 소속감은 부여하지만, 대표자-부양자가 구성원
들을 대등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인정 투쟁을 그 내
부에 불러들이게 되는 구조인 셈이다. 이것은 각 개인이 ‘사람’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가족 내 갈등의 촉발, 대립이 이미 내포
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결속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
다. 여기에서 수평적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소통의 방식을 확장하지 않는 가
부장적 대표자와 구성원의 대립은 기존의 가족을 와해·분리시키는 계기로
작동하게 된다.

2.2. 조건적 환대와 무시 양상

이 작품은 두 남매가 13년 만에 집으로 귀환한 아이를 기다리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가부장의 위계적 질서, 고립된 공동체 내에서 타자에 대한 구분이 내면화된 가족들이 13년 만에 집으로 귀환한 ‘아이’를 향해 보이는 개별적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의 판단 체계는 미성년/성인, 빈곤층/중산층, 피보호자/보호자라는 이분법적 시선, 위계적 질서를 중심으로 작동한다. 가족들은 호혜의 입장에서 가정으로 귀환한 주인공을 타자로 파악하며, 조건적으로 환대하고, 주인공이 기존의 질서에 순응하고 순종하길 바란다. 따라서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받고자 하며, 상호 소통을 주장하는 주인공의 태도는 다른 가족과 갈등을 빚어낼 수밖에 없다. 가족들의 조건적 환대를 인정하지 않는 아이를 다른 가족 역시 인정하지 못하고, 그를 낙인¹⁴⁾찍고 무시¹⁵⁾하게 된다.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아이는, 13년이라는 시간을 길에서 보내며 지속적인 무시의 경험을 불특정 다수에게 받아왔을 것이다. 특히 신체적 불가침성을 훼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사랑과 같은 정서적 충족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성장하면서, “개인이 자신을 신체나 감정적 욕구를 존중받을 만한 존

14) stigma. 결함, 단점, 장애라고도 부른다. 어빙 고프만은 이 저서에서 낙인을 심한 불명예나 수치를 가져오는 속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속성 자체보다는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로 사용하고 있다. 어빙 고프만은 낙인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신체적인 혐오에서 오는 낙인, 둘째는 개인의 기질에서 나타나는 오점, 셋째는 인종, 민족, 종교에 대한 종족 낙인이다. 어빙 고프만, 윤선길 역, 『스티그마:장애의 세계와 사회적응』 한신대출판부, 2009, 17~18쪽 참조.

15) 호네트는 인정의 거부나 박탈, 즉 ‘무시’야말로 오늘날 주목할 만한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고 진단한다. 기존의 사회운동이 사회적 병리를 본래의 불평등이나 소외에서 찾았던 것과는 대조된다. 무시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것은 개인의 긍정적 자기 관계다. 무시를 통해 타인의 자신감, 자기존중, 자부심에 상처를 입게 된다. 도욕, 굴욕을 동반하는 무시의 경험은 단순한 불행, 폭력과 다르다. 타인은 무시를 통해 욕구나 정서 본능을 충족할 수 있는 존재, 도덕적 판단 능력이 있는 존재, 공동체에 가치 있는 존재로서 위상을 부정당했다고 느낄 수 있다. 『악셀 호네트』, 이현재, 50~52쪽 참조.

제로 긍정할 수 있는 기회¹⁶⁾를 빼앗겼다. 또한 “타인에 대한 믿음이 없는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제대로 형성¹⁷⁾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성장과정 속에서 집으로 귀환한 후에도 그는 또다시 무시당하고 낙인찍히고 만다.

낙인들의 공통적인 사회학적 특징은 낙인찍힌 개인이 보유한 어떤 속성들로 인해, 그의 당연한 권리가 묵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낙인에 대한 정상인들의 태도와 행동은 관대한 성격의 사회적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낙인찍힌 이들을 부족한 인간으로 여긴다.¹⁸⁾

아이가 ‘정상인’¹⁹⁾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게 하는 속성, 즉 낙인을 찍게 하는 특수성들은 ‘부랑자’로서 살아온, 생략된 시간 ‘13년’에 대한 언급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작품 내에서 그의 위험성은 ‘숨만 쉬어도 나는 냄새’, ‘남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인지 능력’, ‘근친상간의 금기를 위협하는 행동’과 같은 직접적인 현상과 행태로 그려지며, 이러한 지점들로부터 가족 구성원들은 그를 오염을 인식하고 낙인을 찍는다.

특히 그의 오염은 부랑자로서의 삶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 조짐이 발견되었다. 낮은 인지능력과 돌발행동이라는 특수성이 아이에게 일어난 불행한 상황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된다. ‘정상인’이며 대표자인 아버지가 저지른 실수의 책임을 비정상의 영역에 놓인 돌출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낙인자에게 돌리는 것이다.

아빠: 검사를 받아보니 남들보다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

16) 이현제, 위의 책, 51쪽.

17) 이현제, 위의 책, 52쪽.

18) 어빙 고프만, 앞의 책, 14쪽

19) 고프만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특정 기대치에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빗나가지 않는 사람’을 정상인(the normals)라고 지칭한다. 본고에서도 이 개념을 차용하고자 한다. 어빙 고프만, 앞의 책, 18쪽 참조.

그런 애들은 심하게 야단치면 돌발 행동을 한다는 거야. ...(중략)... 참다 참다 머리 한 대 쥐어박았더니, 잠깐 한 눈 판 사이에 내 손을 놓고 사라져 버렸어.(96)

특히 아이가 집에 들어오고 나서 집안에 나기 시작하는 냄새,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사내 냄새’는 낯설고 불쾌한 감각의 상징이며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근거가 된다. 결함, 단점, 장애로 인식되는 아이의 속성들은 오염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오염으로 인해 가족 내에서 아이의 존재감은 더욱 커지고, 영향력은 강화된다. 이때, 가족들이 아이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할수록 ‘아이’의 길들일 수 없는 주체성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아이는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비인격으로 대하는 가족들-특히 누나와 형-에게 모욕이라는 방식으로 대응하며 맞서기 시작한다. 모욕을 통해 아이가 벗기려고 하는 가족구성원의 허위는 낙인의 존재를 부인하고, 낙인찍는 자신의 모습을 지워내려는 데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낙인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서, 낙인자와 정상인의 만남은 어떤 종류의 기만을 수반할 수 있는데, 정상인은 낙인을 포용하는 듯한 몸짓을 하더라도 정작 자신은 여전히 마음속으로 낙인자가 자신과 동등한 인간임을 믿지 않는다. 다른 한편, 낙인자에게 있어 정상인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일종의 의무라고 볼 수 있다. 낙인자는 정상인들이 변덕스럽게 베푸는, 원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친절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²⁰⁾

아이: 아무리 달라도 난 가만있잖아요? 주는 밥 먹고, 옷 입고, 신발 신고, 이 집, 내 방. 아빠, 어머니, 누나, 형... 내가 하나라도 싫다고 한 거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하는 짓은 다 싫다고 해요?

엄마: 네가 싫어서가 아니야.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지.(125)

20) 김현경, 같은 책, 122쪽 참조.

아이의 상태가 본인들의 기대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 가족 내부에서는 “실제적 사회 정체성”과 “가상적 사회 정체성” 사이의 ‘특수한 괴리’가 발생한다.²¹⁾ 그런데 이 괴리를 발견하기 전, 가족들은 그에게 가상적 사회 정체성을 아이에게 부여하고, 아이의 과거를 묻지 않고 함께 ‘정상 가족’의 범주로 진입하고자 한다. 이 가족들의 방어 기제는 일종의 무지와 회피를 중심으로 작동하는데, 그들은 아이를 비인격으로 설정하고, 그와 소통하기보다는 그들이 가진 것과 알고 있는 것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마땅한 역할-철없고 착하고 선한 막내-을 요구한다. 그들 역시 가족 구성원으로써 각 개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여 ‘정상 가족’의 범주 안으로 진입하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각 개인의 태도와 갈등의 양상은 진실을 외면한 채, 주어진 ‘역할 되기’라는 연극적 수행으로 나타난다.

아이가 돌아오자, 아빠는 아이 앞에서 그간 드러내지 못했던 누나와 형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평가들을 들려주며, ‘아빠’로서의 면모를 드러낸다. 이것은 누나와 형에게도 낯선 일이다. 아이를 찾아옴으로써, 훼손된 대표자의 위상은 회복되었고, 비로소 숨겨왔던 ‘좋은 아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것이다. 수직적 위계질서로 수립된 이 가족의 형태는 대표자의 위상이 회복되자 다른 구성원들의 역할과 위상도 회복시킨다. 이것은 가족 내에 설정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기회가 온 것임을 의미한다.

엄마: 옷을 얼마나 험하게 입는지, 얼룩 묻혀오고..(중략)..

아빠: 내가 야단 좀 칠까?

엄마: 그 재미를 당신한테 양보할 것 같아요?

21) 어빙 고프만은 낯선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첫 모습을 보고 그가 속한 범주와 속성인 “사회적 정체성”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 예측은 사회구조적 속성을 포함하여 개인적 속성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또 사람들은 이러한 예측을 규범적 기대로 전환시키며 그것을 정당한 요구로 여기고, 눈앞의 사람의 유형을 가정하게 되는데, 이때, 누군가 개인에게 부여하는 개성은 기억을 통해 부여한 것이기에 “가상적 사회 정체성(Virtual Social Identity)”이며, 그 개인이 실질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확인되는 범주와 속성은 “실제적 사회 정체성(Actual Social Identity)”이 된다고 설명한다. 어빙 고프만, 앞의 책, 14~15쪽 참조.

아빠: 가끔은 무서운 사람이 필요하니까.

엄마: 내일은 잔소리 한 번 해볼까 싶어요. (101)

형: 내가 이런 날을 기다려왔다는 걸 모르겠냐. 너랑 다니면서 하고 싶은 일
이 얼마나 많은데. 평생을 붙어 다녀도 모자라.(106)

아이를 기다린 가족들은 보호자, 즉 돌봄의 주체가 되고, 동생은 언제나 돌봄을 받는 대상으로 존재한다. 막내를 기다린 시간동안 가족 구성원들이 꿈꾼 것은 ‘아이’의 존재 그 자체라기보다는 ‘막내’가 돌아옴으로서 온전해지는 가족의 형태와 평범한 일상, 안정이다.

더 나아가 아이에게 ‘형’, ‘누나’, ‘부모’라는 온전한 역할 놀이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에게 일종의 보상으로 작동한다. 그들은 모종의 죄책감으로 인해, 가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순간들을 참아왔다. 일종의 금욕적인 태도로서 실종된 아이에 대한 죄책감을 덜고자 한 것이다. 그 긴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를 향한 그들의 그리움은 ‘인내’한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고, 경제적 기반이 회복되면서는 과거를 지우고,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들이 찾고자 한 것은 아무 일도 겪지 않은 어린 시절에 머무른 아이이자, 그 아이와 함께 있던 순간이다.

따라서 아이는 실종 이후, 물리적 공간에 가족들과 함께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인격은 비가시성 속에 놓이게 되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정형화·신성화·고정화되어, 실종자의 실제 인격과는 다른, 가족 내부의 질서에 적합한 이미지로 구축되었다. 실제와 이미지의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가족은 아이가 ‘사회적으로 죽은 기간’ 동안 그에게 벌어진 일을 묻지 않고, 그가 기억하지 않기를 원하며, 다만 그들이 원하는 방식 안에서 존재하기만을 바란다.

그래서 아이를 향한 환대는 무조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상인이 용인하는 수준에서만 수용 가능한 환대이므로 이는 조건적인 환대라고 볼 수 있다. 그곳에서는 소통이 부재하고, 대면도 부재한다. 그래서 ‘아이’는 비인격적으로 다뤄지고 존재를 부정당하는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한다. 이때, ‘아이’에게

작동하는 환대의 방식은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이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아이’가 길 위에서 가졌던 삶의 범주와 속성에 선을 그으면서 자신들의 ‘정상인’의 속성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마주하게 된다. 아이와 선을 긋는 행위는 자신들의 ‘정상인’의 속성을 증명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행위이기도 하다. 가족들은 그 마음속에서 아이의 존재를 더럽혀진 존재로 전락시킨다.

‘아이’의 속성이 기대치와 다르자, 아이는 ‘형’에게 버림받고 길을 헤매며,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도 거리감을 느낀다. 누나와 형의 경우, 아이를 살던 곳 혹은 살던 방식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며 그 생각을 정당화하고 싶어 하지만, 아이가 살아온 ‘길’은 돌아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고정된 ‘공간’이 아니기에 허구적이다. 따라서 ‘아이’는 돌아갈 곳을 갖고 있지 않다. 아이를 내보내려는 생각은 애초에 어떤 방식으로든 정당화될 수 없고, 그들의 환대가 조건적이라는 사실의 증거이다.

이때, 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내면화된 ‘정상인’의 범주를 기초로, 내부 구성원에게도 낙인을 찍고 배제하면서 그들의 위선과 허위가 드러난다. 이 위협적 존재로 인해 가족들은 지금까지의 안정과 평화가 붕괴되어 버릴 지도 모르며, 자신들조차 알지 못하는 자신의 민낯, 위선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위협감과 공포심을 느낀다. 아이를 밀어내는 이들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인물들이기에 더 의미를 갖는다. 이른바 ‘평범’과 ‘정상’의 범주가 배제와 회피를 기반으로 구축되고 있으며 그것을 구축하는 주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편한 상황을 통해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지닌, 가족이라는 환상과 이방인을 향한 조건적 환대의 태도를 비로소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강요되는 생활에 아이는 적응하지 못하고 더욱 적극적인 형태의 투쟁을 벌이기 시작한다. 아이가 받았던 무시의 방식을 되돌려주거나, 모욕을 하거나, 길에서 함께 지냈던 ‘남자’와 ‘여자’를 만나 자신이 귀환한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통제 불가능한 불청객들이 집안에 초대되고 집안의 위계질서가 전복되며 불안은 극대화되고, 가족 내부의 질서는 근간부터 흔들린다.

3. 인정투쟁의 양상 : 상호인정을 통한 공동체의 복원

3.1. 인정투쟁과 상호인식의 변화 양상

호네트에 따르면, 상호인정의 부재가 주체들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무시를 경합하게 함으로써 ‘인정투쟁’의 동기를 부여²²⁾한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거부하는 가족들에 대항하는 아이의 방황과 위협은 ‘존재’ 그 자체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투쟁이자, 자신 안에 존재하는 상실과 결핍을 채우려는 상호소통을 위한 시도이다. 작품 속 가족 구성원들은 주인공 아이가 적절한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유기했던 존재이거나 외부로부터 보호해줄 힘을 갖추지 못했던 존재이며, 아이의 존재 자체를 수용하기 보다는 대상이 지닌 조건에 따라 그를 수용하려는 집단으로 그려진다. 아이는 그로 인해 치명적인 내상을 안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는 결핍된 존재가 된다. 그는 자아를 형성해가는 청소년기의 경계적 존재로서, 기존 질서 안으로 편입되기에는 거칠고 왜곡된 세계관을 갖게 되어 사회 내부의 구성원들에게는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존재로 인식된다.

아이가 돌아온 날, 아빠는 유원지에서 그날따라 통제가 안 되던 아이가 자기의 손을 놓고 사라져 버렸다고 거짓을 말해준다. 아이는 순순히 아빠의 설명을 받아들이고, 착한 막내로 굴어줄 것처럼 보였지만 점차 자신의 실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아이는 누나와 형 앞에서 버림받은 것에 대한 분노를 솔직하게 드러낸다.

아이: ...아빠는 다섯 살짜리 애가 운다고 길바닥에 버렸어. 엄마는 두 아이가 아프니 먼저 병원부터 가야 한다고 했지. 잘 놀다가 왜 갑자기 아팠을까? 어쩌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을 걸. ...너희들은 날 내쫓고 내 뒀을 나뉘가졌어. ...(중략)... 그런게 인간이거든. 내 뒀이 늘어나고

22) 악셀 호네트, 문성훈·이현재 역, 『인정투쟁: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사월의책, 2011, 142쪽.

줄어드는 건 어린애라도 느껴. 남의 것은 무엇이든 뺏고 싶은 게 인간이야. 내 것보다 남의 것으로 사는 게 인간이지. 그러니 무슨 염치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볼 수 있었겠어? ...하필이면 왜 나야? 니들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적 없었어?(111)

가족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며, 아이가 길에서 함께 지냈던 ‘남자’와 ‘여자’를 집으로 들이면서 갈등은 극대화된다. 아이가 가족을 떠나 최초로 겪은 사회적 상호작용은 길 위에서 떠돌이 부랑자인 ‘여자’와 ‘남자’를 만나면서 시작된다. 사회의 바깥을 상징하는 ‘길’의 생존 논리는 ‘인격’의 부재와 불인정을 기반으로 한다. 그런 점에서 등장인물들이 모두 개별적 이름을 갖지 않고, 사회적으로 부여된 역할(아빠, 엄마, 형, 누나)과 그것이 없는 인물(남자, 여자, 아이)로 양분된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아이’, ‘여자’, ‘남자’는 길 위의 존재들로 온전한 이름을 갖지 못했다. 특히 아이에게는 ‘까마귀’라는 별칭만이 부여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어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는 이들이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 체면²³⁾과 같이 지켜야 할 ‘명예’도 갖지 못함을 의미한다.

아빠 : 고아원 나와 여기 저기 떠돌면서 살았던 모양이야. 배고프면 남의 집 일도 하고, 돈을 못 받으면 훔치고 하고... 경찰서에 수없이 드나들었다. 이번엔 처벌이 불가피해서 신원조회를 하다가 혹시나 싶어 미아신고센터에 연락을 했다는 거야. 별명이 까마귀였단다. 먹을 것만 보면 훔치는 까마귀.(99)

여자와 남자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역할과 기대를

22) 체면(face)이라는 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동안 그들이 짐작하는 노선대로 자기를 표현하여 얻게 되는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라 정의할 수 있다. 체면은 개인이 남들의 인정을 얻게 되는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라 정의할 수 있다. 체면은 개인이 남들의 인정을 받을 만한 사회적 자질을 지닌 존재로 스스로를 표현하는 자아이미지인 셈이다. 어빙고프먼, 진수미 역, 『상호작용 의례』, 2013, 아카넷, 18쪽.

전복시키는 삶을 살아왔기에, 가족들은 그들도, 그들이 아이와 함께 살아온 방식도 인정할 수 없다. 거리에서 함께 살았던 남자와 여자가 갖고 있는 폭력성과 파괴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이는 이 집안에서 가족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에 그들을 안으로 끌어들인다. 가족 구성원들은 이 불청객들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자신들과 그들-아이, 남자, 여자-의 차이를 실감하고 그들에게 낙인을 부여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수용하고 함께 살아온 ‘여자’와 ‘남자’, 이 세 사람은 제일 힘들 때에 만난 존재들로서 ‘서로를 망가뜨렸을’ 지라도 서로를 버리지 않는 사이이다. 그들은 ‘갖고 싶은 것은 다 빼앗는’ 방식으로 생존해 왔으며, 자신들의 생존의 방식은 다를 뿐이라고 주장한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방식이라는 생각으로 묶여있는 일종의 생존 연대이며 길에서 형성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었다. ‘여자’와 ‘남자’는 아이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와 가족들이 아이를 대하는 태도를 간파해낸다.

엄마: 13년 만에 만났습니다. ...(중략)... 그만 우리한테 돌려주세요.

남자: 당신들, 믿을 수가 없어. 무슨 강아지 데리고 놀 듯 사는 게 가족이야? (127)

이 ‘거리의 가족’은 집안에 들어와 원래의 가족들이 마치 투명인간인 것처럼, 그들이 본래의 집 주인인 것처럼 공간을 확보한다. 이들은 떠날 때가 되면 떠난다며, 체면을 중시하고 근원적 문제를 외면하려 하는 가족들을 지적한다. 기존의 사회질서가 통용되지 않는 형태의 대리가족의 형태와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이들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은 그에 대한 자신들의 반응을 인식하면서 자신들의 소통방식의 유효성에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

한편 아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부모 혹은 형제와 소통하기를 원하고, 그를 통해 인정 욕구를 채우기를 원한다. 그는 자신을 비인격으로 대하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정상인’의 수행을 부인하며 그들을 모욕함으로써 그들의

명예에 손상을 가하려고 한다. 타인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여 서로의 명예를 존중하는 사회적 질서를 무시하고 개인이 가진 문제의 핵심을 관통하며 모욕하는 아이의 태도는 그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정상인’ 이미지에 균열을 가하게 된다.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거침없이 지적하는 아이를 통해 구성원들은 그를 더욱 두려워하게 된다.

아이: 그렇다고 자기 자신까지 속이지는 마. 세상 어떤 일에도 관심 끄고, 죽을 때까지 최고로 살기 위해서, 핑계거리가 필요했던 거 아니야?
(109)

아이: 누가 자기에 대해서 아는 척 하는 거 싫어한댔지? ...그건 형이 자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야. 지금까지 하나라도 형이 알고 한 게 있어? 하지만 형은 너무 아는 척을 한다는 게 문제야.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버티기가 힘들었겠지. 그래서 기억도 나지 않는 잃어버린 동생 핑계나 대는 거 아니야? 괜히 남들하고 다른 척 하지 말라고. 그런 인간들이 꼭 배신을 한다니까. ...(중략)...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세상에서 제일 나쁜 짓 하는 게 바로 너 같은 놈들이야. (110~111)

그에 대한 가족의 대응은 구성원 별로 차이를 갖기 시작하는데, ‘아이’에 대한 거부와 부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직접 아이와 대면하면서 가족 구성원들이 각기 다른 입장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형: 그 자식한테는 집이란 게 필요가 없어요. 쓰러져 자는 데가 집이고, 길 거리에서 만나는 저 같은 놈들이 가족이에요. 어딘가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지겨웠겠어요.(129)

형은 특히 아이로 인해 ‘행복감과 모욕감을 동시에’ 느낀다며, 아이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한다. 누나 역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으며, 억지로 붙들고 있

는지도 모른다며 아이를 차라리 보내버리자고 말한다. 그러나 동생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 남아있는 누나는 점차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가만히 응시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인식하려한다는 점에서 다른 등장인물들과 다른 노선을 걷는다. 누나의 질문은 그러한 지점을 잘 보여준다.

누나: 우리가 정말 그 애를 기다렸을까요?(129)

누나의 말들은 가족의 내부를 향한다. 아직 아이와의 완전한 조우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아이의 솔직함을 ‘무서워’하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 시절의 어린 아이였던 ‘아이’만을 기다리고, 의미를 부여하고, 상징화하여 실제적인 존재로 ‘아이’를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는 진실에 다가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아이는 이 가족의 삶의 방식이 길 위에서 의 생존논리와 다르지 않음을 지적한다.

각자 부여받은 역할의 가면 뒤에 숨어, 돌아온 ‘아이’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는 것이 내면화된 가족 구성원들에게 ‘아이’는 서슴없이 가까이 다가간다.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보는 척하는 가족 구성원의 연기에 호응하지 않음으로써 위계적 상호작용을 거부하는 ‘아이’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의 질서²⁴⁾ 안에서 동등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행위이며, 인정투쟁의 한 양상이다. 이것이 지향하는 바는 주체 아닌 존재를 적으로 돌려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추구하여 통합적인 사고와, 독립성을 확보하

24) 고프먼은 얼굴(face)을 유지하는 것이 상호작용의 목표라기보다는 조건이라고 말하며, 상호작용의 목표들-의견을 나누고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은 보통 서로 얼굴(face)을 잃지 않고 또 잃지 않게 하려는 노력 속에서 진행된다. 우리는 사회 안에서 행위자로서 목표지향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동시에, 사람으로서 서로를 인정하는 의례를 수행한다. 이는 총체로서의 사회가 구조와 상호작용 질서로 이원화되어 있음을 함축한다. ‘상호작용 질서’는 성원권의 인정과 관련되며, 구조의 면에서 불평등한 개인들이 상호작용의 질서 안에서는 평등하다고 가정한다. 어빙고프먼, 앞의 책, 90-91쪽 참조.

여 생존하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인식의 추구는 타인 안에 존재하는 나를 통해 인식되는 것이므로 구성원 일부에게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구성원에게 작용함으로써 그 구조를 변화시키게 된다.

3.2 상호인정을 통한 공동체의 복원과 확장

‘투쟁’은 상대와 내가 상호 인정하는 상태를 회복하여 훼손된 자기 관계와 박탈의 경험을 타개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타자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타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이지만, 작품 속에서 아이가 기억하는 진실은 ‘널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누군가의 말이다. 아이는 존재를 부정당하고, 귀환 후에도 여전히 자신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고통으로 인해 이 가족을 부수고, 이들로부터 떨어져 나오기를 원한다.

그러나, 누나를 시발점으로 하여 가족 구성원들의 논의가 적극적으로 시작되는데, 이제 이들은 ‘아빠’, ‘어머니’, ‘누나’, ‘형’과 같은 ‘역할’에 기반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공론의 장을 만들고 모여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개별적 주체, 구성원으로서 접근한다.

해명, 설명, 비난으로 점철된 자리지만 처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구성원들 앞에 ‘까마귀’였던 ‘아이’는 더 이상 위악을 부리거나 다른 이들을 추켜세우며 빈정거리지 않는다. 그가 그토록 알기를 원했던, 자신이 부랑자가 되어야만 했던 계기와 이유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가정을 부수려 돌아온’ 아이의 공고한 내면에 가느다란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누나: 난 네가 무섭지 않아. (133)

이젠 널 똑바로 봐야겠어.(134)

누나는 더 이상 아이를 자신과 다른 오염된, 위협적 존재로 인식하지 않고, 대면해야 할 동등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누나의 말을 기점으로 가족들은 각자가 가진 과거에 대한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다.

누나: ...내가 무서웠던 건 네가 아니라, 너 때문에 되살아날 것 같은 기억이
있어. 오랫동안 난 그게 꿈인 줄만 알았어요. 억지로 닫아버렸지만,
아직 살아있었어. 엄마, 더 이상 숨기지 말아요. 난 이제 두렵지 않아요.(135)

아빠: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는 너를 보니, 너만은... 데려갈 수가 없었다.
...(중략)... 난 외진 바닷가로 차를 몰았다. 그리고 차 안에... 불을 피웠
어. 우린... 길이 없었다.(135)

이 대화 속에서 가족들은 아이를 기존의 언어로 혼육하거나 적응시켜 가족 내 권력관계나 위계질서에 편입시키려 한다거나, 구성원 모두가 그에게 헌신을 약속하며 선부른 화해를 청하지도 않는다. 물론 부정이나 회피같은 방어기제를 사용하며, 갈등을 촉발하기는 하지만 진실을 대면해야만 하는 결정적 순간이 왔을 때는 담담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다. 이제 부양자-대표자인 ‘아빠’가 가족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 자녀들인 누나와 형 역시 그것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거나, 옹호하지 않는다.

온전히 타인이 주입한 동생의 실종에 대한 기억을 내면화하여 살아온 형은 대표자인 아빠를 비난하는 반응을 보인다. 항상 모든 것에 대해 다 아는 척 했던 형은 진실로 ‘모르고 사는 게 낫다’는 말로 이제까지 자신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말들을 던진다.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면서 분노를 쏟아낸다. 그것은 자기 삶에 대한 분노와 진실과 맞닥뜨린 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다.

형: 그게 용서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중략)... 영원히 모르게 해야지.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아.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136~137)

여전히 아이 역시 자신을 거부하는 가족으로 인해 자신을 거부하게 되는데, 이때 거부와 혐오는 일방적인 방향성을 갖지 않는다. 아이 역시 자신을 거부하는 가족들에게 분노하지만 이 균열과 잠음을 일으키는 자신에 대해서

도 동시에 혐오를 느낀다. ‘타자 속에서 자기 자신으로 존재’²⁵⁾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는 사회적 시선을 담지한 가족들, 주변인에 대한 동조이자 자기혐오이다. 이것은 공동체의 복원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작용한다. 스스로를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구성원이 있는 공동체의 상호작용은 일방적 방향성을 갖게 되고, 진정한 소통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이: 봐!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망쳐놨어... 다들 날 까마귀라고 불렀어요.
내가 끼면 되던 일도 안되고, 재수가 없다고.(137)

아이가 자신이 누리지 못한 과거의 삶의 가능성에 대한 간절함은 가족에 대한 미움으로 커지고, 끝내는 집을 빼앗으려는 욕망으로 변져나간다. 그러나 엄마는 이제 아이의 왜곡된 정체감에 새로운 기억을 덧씌워준다. 모든 것에 대한 회방꾼처럼 보였던 아이가 이 가족의 생존자이자, 가족의 구원자로서 동시에 기능했음을 밝히는 것이다.

엄마: 넌 우리를 늘 웃게 해줬다. 죽고 싶을 때면 차창 밖에서 울고 있었던 네 얼굴이 떠올랐어. 지금 이 순간 네가 우리를 대신해 울고 있는 것 같았어. 언젠가 너를 만나기 위해 살아야지 했다.(137)

아이: 난 ...당신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누나: 넌 항상 여기 있었어. 만날 수 없었지만, 우리 이어져 있었어.

...넌 무서운 사람이 아니야.

아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가게 해줘. 날 좀 보내줘요.

형: ...어디 갈건데. 나랑 같이가자.

아이: (중략)...왜 난 아무도 미워할 수 없냐구요. ...(중략)... 더 이상 날 보고 있지 말아요. 차라리 날 잊어버려요. ...(중략)...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137-138)

25) 악셀 호네프트, 앞의 책, 198쪽.

아이는 자신의 균열을 통해 끔찍한 진실에서 온 분노, 수치심, 지금껏 몰라도 됐던 자기 자신이 길 위에서 해온 행동의 의미 등을 깨닫게 된다. 복수는 그 대상과 방향성을 잃고, 아이 역시 자신과 대면하게 된다. 복수자로서 자신의 자리를 잃은 아이는 이 집과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떠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아이가 이 집에 투입하면서 발생한 일상의 균열은 결국 집안을 둘러싸고 있던 외피를 벗겨내고, 과거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각자의 진정한 모습과 대면하게 한다. 이제 모든 구성원은 각자 주체로서 발언권을 갖고, 발언할 수 있는 장을 갖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새로운 대표자의 탄생, 권력의 이양 과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관계의 구조, 상호작용의 구조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작용의 구조는 위계질서처럼 고정된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한 방향에서의 불인정은 다른 방향에서의 불인정을 동시에 의미한다. 결국 아이의 인정투쟁은 아이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 ‘인정 투쟁’을 수행하여 통해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하고, 가족 간의 온전한 조우를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누나: 나는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 자꾸 감추고 잊으려고만 했어. 우리는 알아야 해. 그래야만 용서할 수 있어.(137)

과거의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의 진실을 확인한 형은 다시 집을 떠나서 누군가를 위한 집을 지으러 길을 나선다. 언제나 동생을 기다리며 동생과 무언가를 함께 하고 싶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고백해왔던 형은 이제 자신만의 인생을 찾기를 원한다.

형: 회한한 놈이야. 내가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했어. 입만 열면 피가 거꾸로 솟았다니까. ...그 놈은 날 제대로 봤던거야. 조금만 견뎌오면 나도 그 놈 볼 수 있었을 텐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자기를 봐 달라는 말이었어.
누나: 그 애를 기다린 것만은 확실한데, 우리가 만난 건 그 애가 아니었어.

...그엔 우릴 볼 수 있었지만, 우린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았어. ...그
애가 견딜 수 없었던 건 당연해.

형: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졌어. (140~141)

누나: ...그애가 우리 앞에 길을 만들어줬어.(141)

그토록 부인하고 부정했던 존재로부터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길에 버려졌던 아이는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가족에게 돌아왔으며, 자신들의 막다른 길에 있는 줄 몰랐던 가족에게 길을 열어 보여준다. 아이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내면화된 사회적 기준들을 따라 자신을 교정하려 하지 않는다. 아이는 다시 길로 떠남으로써, 자신에게 이중적으로 내면화되어 있던 기준들을 거부한다. 버려진 후 길 위에서 습득한 ‘거리의 불량자’로서의 기준,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작동하는 내부 사회의 ‘정상’ 기준에도 부응하려 들지 않는다.

아빠: 뭘 버렸는데?

아이: 내가 까마귀였을 때 모아놓은 것들이요. 그때 빛나는 것을 좋아했어
요. 난 너무 어두웠으니까요. ...(중략)... 우리의 오랜 슬픔도 버리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울지 마세요.

엄마: 그 다음엔 집에 올거지?

아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꼭 돌아갈게요.(143-144)

구성원 간의 상호인정을 통한 수평적 관계의 설정이라는 환경적 변화, 사회 구조적 시스템의 구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바깥에서 요구받는 사회적 기준과 타자의 욕망과 시선에서 벗어나서, 내면화된 자기혐오와 비하, 대상화에서 벗어나 오롯한 주체로 서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낙인으로 부터의 진정한 탈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주인공 ‘아이’가 분노와 반사회적 행위를 촉발시키는 자기 파괴적 행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게 된다.

‘아이’는 인정투쟁을 통해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회복한 후, ‘집’에서 벗어

난다. 회피 혹은 분리와는 다른 행위로서 집을 떠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여행’이 된다. 이는 새로운 정체성의 수행을 위한 공간으로 나서는 행위이다. 아이가 떠나는 길은 예전에 ‘남자’, ‘여자’라는 등장인물과 함께 헤맸던 그 길이 아니다. 생존과의 싸움만이 최우선시 되어, 인간이 아닌 까마귀로만 존재했던 길이 아니라, 언제든지 돌아올 곳이 있으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떠나는 길이다. 이제 아이의 삶은 온전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기 위한 여행이 된다. ‘아이’가 다시 나선 ‘길’은 자신을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공간-과거의 정체성이 통용되는 공간-이므로 곧 현재의 자신과 과거의 자신이 투쟁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이는 간신히 되찾은 자신의 위치와 공간을 포기하고, 자신의 주체적 선택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지위·공간의 상실과 복원에 대항하여 상호작용의 지평을 넓혀나가 자신이 주체가 되어 공간을 획득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있을 자리를 찾기 위한 모험이다. 이것은 내부의 ‘사람’이었던 형에게도 동시에 작용한다. 자신의 삶의 자리를 찾으면서도 기존 공간과의 연결성을 인정하며 공간을 찾아나가려는 개인의 시도는 결국 그 사회의 영역을 보다 풍성하게 확장하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형은 이제 자신이 만드는 집의 의미와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이 집에 대해 갖게 될 의미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짓는 집에 살게 될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 아이를 통해 체감했다. 그는 이제 누군가-동생-를 만나기 위해 떠나지 않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머물 집을 만들기 위해 떠난다.

이를 통해 작품 속에서 지향하는 가족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만 결속력을 지니는 집단이거나, 집 역시 가족이 물리적으로 함께 머물러야만 하는 공간도 아니게 된다. 집은 온전한 자유가 머무는 공간이다. 여기서 ‘집’은 오히려 어디 있어도 상관없는 공간이며, 언젠가 궁극적으로 찾아야만 하는 자신만의 공간이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진정한 공간인 ‘집’을 찾는 시도는 물리적이고 제한적인 사회 내부의 공간 안에 규정되고 고정되지 않는다. 밖을 향해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아가는 개인들의 시도는 전 사회를 점차 확장하고 성장하는 공간으로 기대하게 한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이러한 시도들이 분열되고

붕괴된 현실 공간에서 탈출하여 자리를 ‘옮김’이 아니라는 것, 등장인물들이 그 공간에서의 시간을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너졌던 바로 그 자리가 재생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4. 나가며

이 작품은 가장 작은 사회 공동체인 ‘가족’을 조명하여 한국의 현대사회 구조 속에서 위기 상황에 놓인 ‘중산층의 불안과 공포’를 다룬다. 특히 가부장적 사회가 규정한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날 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경제적 구조뿐만이 아니라, 신분적 구조의 불안을 동반한다.

극은 사실주의의 외피를 쓰고 있으나, 공간을 중심으로 알레고리를 취하여,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와 자본주의와 영합한 가부장적 사회의 타자에 대한 공포, 조건의 환대를 진정한 환대라고 착각하는 위선을 고발한다. 나 자신이 경계선에 놓여있다는 공포, 알지 못하고 겪어보지 못한 상태로 전략한다는 공포와 더불어 내가 알지 못하는 존재들의 등장이 나의 일상을 흔든다는 공포 등 주체가 갖는 타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가족을 흔드는 존재는 완전한 타자가 아니라 혈연으로 끈끈하게 묶인 친족 관계‘였던’ 귀환한 구성원이다. 13년의 시간이 생략된 채로 등장한 이 낯선 존재 역시 가족들에 의해 신성화되거나 타자화되는 존재로만 그치지 않고, 이들의 위선과 허위를 고발한다. 돌아온 아이는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폭력적이고 기존의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는 부적합한 자신의 밑바닥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선하지 않은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벌인다. 그의 인정 투쟁은 위협적인 태도로 드러나지만, 그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나를 타자화하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무시당한 자기 존중과 존엄성을 되찾는 것이다. 그의 투쟁은 개인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가족 구성원 특히 누나와 형이 지닌 기존의 자기인식

의 방식 즉, 부모가 내면화시킨 가족의 위기감으로 인해 소외시켰던 각자의 욕구와 개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간다.

따라서 작품은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해 공포를 느끼는 평범한 가족을 통해 ‘정상인’이라는 착각과 위선을 풍자하고 비난하기 보다는, 각자가 지닌 진실에 대면하여 올바른 개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기존의 내면화된 가부장적 위계질서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원 개개인은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로 서로의 관계를 인정함으로써 또한 자신들도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닫는 과정이다. 이러한 수평적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것은, 다수의 구성원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공동체에 타자가 일방적으로 수용하며 적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 상하관계로 개별 공동체를 고립시키기 보다는, 구성원의 개성과 선택을 존중하면서, 공동체의 영역을 물리적으로, 또 관념적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를 보여주려고 한다. 즉,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도달해야할 진정한 공간으로서의 ‘집’을 찾으려는 시도로 나아가는 것이다. 사회적 위기 속에서 균열과 붕괴를 겪은 현실 공간과 개별인물의 대응의 방식은 등장인물에 의해 거부되거나 부정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재생의 출발점이 된다. 작가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 균열과 붕괴를 겪은 현실 공간과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동등한 존재로 받아들이며, 있는 그대로의 공간과 존재로서 서로를 존중할 때 진정한 재생과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이 작품뿐만 아니라, 고연옥의 다른 작품들 속에서 가정과 사회 내에서 개인에게 부과하는 폭력 기제의 작동 양상과, 그것이 결과적으로 ‘주체’가 되어야 할 존재들을 어떻게 ‘타자’로 양육하는지, 그 과정에서 왜곡된 개인이 사회를 어떻게 파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해 볼만한 과제로 여겨진다. 특히,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인정투쟁’을 벌이는 소년들의 이야기로 묶여지는 「손님들」, 「주인이 오셨다」와 함께 더욱 깊이 연구해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참 고 문 헌

1. 자료

고연옥, 「내가 까마귀였을 때」, 『고연옥 희곡집2』, 연극과인간, 2015

2. 논저

곽상인, 「가족의 재건을 통한 상처 치유의 가능성 고찰-김영하의 소설 「오빠가 돌아왔다」와 양익준의 영화 「똥과리」를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제19집(2011.4), 한국문학치료학회.

권명아, 「마지노선'의 이데올로기와 가족·국가」, 『탈영자들의 기념비』, 생각의 나무, 2003.

김성희, 「고통과 구원: 모성과 재생의 상상력-극작가 고연옥론」, 『연극평론』 복간12호(통권32호), 2004. 봄호.

김성희, 「[극작가와와의 만남_고연옥] 사회적 소재와 구원에 대한 탐구」, 『공연과 이론』, 공연과이론을위한모임, 2007.6.

김성희, 「고연옥 희곡의 신화적 상상력과 해체적 신화쓰기」, 『드라마연구』 제51호, 한국드라마학회, 2017.

김성희, 「동시대 희곡에 나타난 신화적 상상력과 신화 다시쓰기 방식 - <에비대왕>과 <처의 감각>을 중심으로」, 『한국연극학』 67, 2018.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문성훈, 「악셀 호네트와의 대담:현대 비판의 세 가지 모델」, 『한국사회와 모더니티』, 이학사, 2001.

문성훈, 「인정개념의 네 가지 갈등구조와 역동적 사회발전」, 『사회와 철학』 제10호, 2005.

손영창, 「테리다의 환대론에서 절대적 타자의 외재성과 제삼자의 위상에 관하여」, 『범한철학』제83집, 2016.

악셀 호네트, 강병호 역, 『물화:인정 이론적 탐구』, 나남, 2015.

악셀 호네트, 문성훈·이현재 역, 『인정투쟁: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 사월의책, 2011.
- 악셀 호네트, 문성훈 역, 『정의의 타자: 실천 철학 논문집』, 나남, 2009.
- 어빙 고프먼, 윤선길 역, 『스티그마: 장애의 세계와 사회적응』, 한신대학교출판부, 2009.
- 어빙 고프먼, 진수미 역, 『상호작용 의례』, 아카넷, 2013.
- 어빙 고프먼, 진수미 역, 『자아 연출의 사회학』, 현암사, 2016.
- 어빙 고프먼, 심보선 역, 『수용소』, 문학과지성사, 2018.
- 이경미, 「2010년 이후 한국회곡에 나타난 위험사회의 징후 : 기억되지 못한 역사, 트라우마 그리고 무기력」, 『드라마연구』41, 2013.
- 이상원, 「테리다의 환대 개념의 정치적 긴장성-고대정치철학적 해석과 사유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1(4), 2017.
- 이은정, 「테리다의 시적환대-환대의 생성적 아포리아」, 『인문과학』44권,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9.
- 이종주, 「악셀 호네트의 사랑의 인정이론의 현상학적 재구성」, 『철학논집』 제42권, 2015.
- 이현재, 『악셀 호네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9.
- 장윤정, 「고연옥의 사회극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홍창수, 「감옥 소재 희곡의 공간 의미 연구」, 『민족문학사연구』44, 2010.

【Abstracts】

A Study on the ‘Recognition Struggle’ Aspect of
Go, Yeon-Ok’s play

– Focused on 「When I was a Raven」 –

Jin, Ju

This study examines Go, Yeon-Ok’s practical, specific social criticism and a alternative social aspect through her works. As the myths and tragedies of her works have been studied extensively, the practical and specific alternatives of the playwright and her languages have been neglected.

「When I was a Raven」 is different for other works about the point that the play have futuristic ending and recover of the community through the self-recognition by the members.

In particular, the process in which the main character ‘Boy’ embraces the community denying himself and the mutual recognition process in which the boy is accepted from the community is the process of not only the main character but also each character is meeting. In this regard, it reminds the main premise of Honneth’s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According to Axel Honneth, the motive of struggle is disrespect, and the goal of the struggle is recognition. The cause of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is the negation of self - dignity and the process of regaining unjust self - esteem due to neglect. He tried to explain the dynamics of society through this model of recognition struggle, and hoped that he could analyze the pathological phenomenon of society.

The boy’s recognition struggle takes a threatening attitude. His goal,

however, is not to threaten his family, but to regain self-esteem and his dignity that are ignored by family members. His struggle is not just about his own. His struggle helps his brother and sister discover their own desires and selves. This work deals with 'middle class' and 'normal family' but does not aim at satire of a certain class. Rather, it shows how to establish the right individual identity in face of each person's truth.

This Family recognize that each other can exist in one another through equal mutual recognition, not hierarchical order. It shows an attempt to extend the domain of the community physically and ideologically, while respecting the individuality and choice of the family members.

The playwright says that the real space and community members who have undergone cracks and collapses in the social crisis accept each other as equal, not ignoring or denying one another, and real regeneration and recovery begin when they respect each other as space and existence as they are.

Keywords : When I was a Raven, Go, Yeon-Ok, Axel Honneth,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disrespect.

이 논문은 2019년 06월 19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07월 14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9년 07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